

三宅尙齋學派와 李退溪**

海老田輝之*

• 목 차 •

I. 序 論	있어서의 퇴계학
II. 三宅尙齋와 李退溪	IV. 尙齋學派와 李退溪
III. 三宅尙齋와 稻葉迂齋에	V. 結 論

I. 序 論

三宅尙齋(1662~1741)는 山崎闇齋(1618~1682)의 三弟子의 한 사람으로 佐藤直方(1650~1719), 淺見綱齋(1652~1711)와 함께 李退溪의 학문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李退溪는 李栗谷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大儒로서 朱子 이후의 제 1인자로 칭하며, 현재 퇴계학의 연구는 대한민국을 위시하여 자유제국은 물론이고, 공산권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 세계적인 李退溪의 사상을 三宅尙齋의 師(스승) 山崎闇齋는 열심히 배워서 강한 영향을 받았다. 이 闇齋의 3제자 중 佐藤直方과 그의 문류가 가장 퇴계학에 공명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예컨대 直方の 『冬至文』, 『直方學話』와 그 문인들의 편저의 서문 같은 데에 퇴계학에 대한 논설이 있고, 直方の 삼제자(稻葉迂齋, 野田剛齋, 永井隱求)의 1인인 稻葉迂齋의 계통 사람들은 明治 초년까지 매년 『冬至文』을 읽어 뜻을 격려하고 있었다.¹⁾ 또 淺見綱齋學派의 사람들은

* 九州공업전문학교 교수

** 퇴계학 부산연구소, 『퇴계학논총』 창간호(1995) 게재논문

直方派의 정도는 아니었으나 퇴계학에 共鳴하여 『朱子行狀』을 반복강습하고 있다. 이 두 사람에게 비해서 尙齋는 퇴계학에 대하여 언급하는 일은 적으며 『朱子書節要』의 발췌를 만드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한다²⁾.

그러나 『日本朱子學と朝鮮』에서 阿部吉雄 박사에 의하여 일본의 江戸 말기부터 明治 初頭に 걸쳐 활약한 楠本端山, 碩水의 형제가 李退溪를 존중하여 崎門學을 집성한 것이 기술되어 있고, 더구나 이 端山, 碩水 형제가 三宅尙齋의 계통인 것이 岡田武彦 박사의 저서와³⁾ 福田殖, 難波征男 兩氏의 논문⁴⁾ 따라 명백히 밝혀졌다. 또 필자는 三宅尙齋의 저술물에 따라 尙齋와 李退溪와는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고, 尙齋에게서 배운 稻葉迂齋이 퇴계학을 배웠다고 생각되는 점, 尙齋의 문류에는 南本端山, 碩水 외에도 퇴계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등, 이상 세 가지 점에 봉착하였다.

1. 三宅尙齋와 李退溪

三宅尙齋는 寛文 2년에 明石藩士平出重道の 차남으로서 播州(兵庫縣)에서 출생하였다. 18세때 父의 遺命에 따라 京都에서 의학을 공부했다. 翌년에는 醫業을 廢하고 程朱의 學을 배우기 위하여 淺見綱齋에 師事하였으나, 綱齋는 잠시 후에 자기의 스승 山崎闇齋에게 師事시켰다. 尙齋가 의학을 폐하고 정주의 학을 생애의 학문으로 한 것은, 아마 자기의 인생을 천하국가를 爲師하여 소용있게 하자는 것이었다고⁵⁾ 생각된다.

尙齋가 闇齋에게 사사받은 것은 불과 2년간 이었다. 朱子를 宗으로 하여 그 學을 신봉한 闇齋는 만년에 특히 『春秋의 大義名分』을 중히 여

1)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 朝鮮」(1975年複製版 東京大學出版會)

2) 「同上書」

3) 岡田武彦 「補本端山」(明德出版社) 「江戸期の儒學」(木耳社)

4) 福田殖 「楠本 碩水」(九州大學中國哲學論集 14) 難波征男 「李退溪와 日本의 儒學」(第一回韓日<福岡·釜山> 退溪學國際學會 1988年 1月)

5) 「道學淵源錄」尙齋先生實記上

기어 민족주의적 입장에 서서, 한편으로 일본 神道에 傾斜하여 神儒一體說을 주창했다.

尙齋는 神道を 배우려 했으나 闇齋는 먼저 유학을 배울 것을 중용했다. 또 闇齋는 李退溪의 저서를 거의 다 독파하고 한국에 있어서의 朱子學의 제 1인자로, 朱子의 高弟에 손색이 없는 대유라고 하였다. 尙齋는 闇齋에게 사사하기를 2년이란 짧은 年月이었으나, 정주의 학만이 아니고 퇴계학에 대하여도 배우게 된다. 특히 闇齋가 『自省錄』을 『居業錄』(胡敬齋), 『讀書錄』(薛敬軒)과 함께 長年樂讀하고 있었던 것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선생도 그 연세까지 이것저것으로 공부가 바뀌어졌다면 모두가 그리 될거야…略…居業·독서 자성의 錄이 그냥 재미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세월을 보내었다.]⁶⁾ 尙齋는 闇齋의 학덕을 칭찬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先生從垂加翁方弱齡，然鑽仰感其道德，嘗語先君子云，子見淺見佐藤者也，至翁則以淺見之方正，加佐藤之活大，終不復能及矣] 『道學淵源錄』

垂加翁은 闇齋, 先君子는 稻葉迂齋이다. 尙齋는 闇齋의 사후 48세까지는 江戸와 忍(埼玉縣行田市)에 在住하고 그 이후는 京都에 재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京都에서는 淺見綱齋, 江戸에서는 佐藤直方에게 배웠다. 綱齋, 直方은 尙齋가 師事하려고 한 데 대하여 闇齋의 門弟로서 友人으로 접할 것을 소망하였다.

따라서 尙齋는 이 두 사람에게 兄事하였다. 尙齋는 闇齋, 綱齋, 直方과 비교하면 가장 유교를 신봉한 사람이다. 일본의 유자의 學皆가 정치나 도덕에 유교를 활용하는 데에 전념하였으나, 尙齋는 도덕의 실천이나 정치, 교육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유교를 종교로서 신앙하고, 불교·일본 신도에 대하여 “儒道”로 칭하였다. 尙齋가 유교를 종교로서 확립한 것은, 藩主 阿部正喬의 非道에 대하여 간언을 한 탓으로 忍城內에 繫獄된 46세의 경이다. 그 일은 옥 중에서 혈서한 『狼寔錄』, 『祭祀來格

6) 『尙齋先生雜談錄』上(久米訂齋筆記) 享保八年八月尙齋六十二歲の 談話

說』에 의하여 알 수 있다.

闇齋는 만년 神儒일체설의 입장에서 垂加神道を 주창하고 綱齋도 神道에 접근하여, 神道는 天地一貫의 도⁷⁾라고 칭하였다.

直方은 우주의 間에는 一理 뿐이라고 하였고, 儒道와 神道の 二道の 존재를 부정하고, 『一理一道』의 正道라 함은 『中國至聖大中至正之訓』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直方은 闇齋, 綱齋에 비하면 유교를 본지로 하고 있으나, 元錄 15년 12월 15일 主君 淺野長矩의 怨讐를 친(討) 赤穂浪士에 대하여 법으로 처벌된 주군의 원수를 법을 어기고 친 것은 이중의 범죄라고 하였다. 尙齋는, 『殺長矩者公也』, [默識錄]라고 하고 있으나 『彼立異論者, 皆無考質於朱子, 而妄意詆阿』 [默識錄]라고 말하여, 朱子學의 입장에서 법가적 입장을 취한 直方을 비난하고 있다.⁸⁾ 여기에서 尙齋, 直方の 유교의 相違點을 엿볼 수 있다.

李退溪는 士風 쇠신을 위하여 서원교육에 盡瘁도 하고 만년에는 大提學, 知經筵의 관직에 취하여 時務六條를 상소하여 경세제민에 분주하였다.

이와 같이 우수한 교육이나 정치 등에서 실천하였을 뿐만 아니고, 겸허하고 인후한 성격으로 산림의 靜謐을 즐기고, 氣宇雄大하신 분으로서 더욱이 일상 자성적이었다.⁹⁾ 그에 대하여 山崎闇齋의 기상은 격하고, 師道도 엄하였다. 稻葉默齋(迂齋의 子)는 『先達遺事』에 다음과 같이 述하고 있다.

垂加翁師道至嚴. 其接門人. 雖細過, 不少假…略…闇齋性急. 特罵門人遲鈍者.

또 闇齋는 지각한 제자를 매도할 뿐만 아니라 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때도 있었다.¹⁰⁾ 그러나 「道學淵源錄」 尙齋선생 實記상에 「先生親灸

7) 淺見綱齋「答跡部良顯問目」

8) 佐藤直方「韞藏錄」

9) 退溪先生年譜, 福田植「李退溪의 學問と 日本文化への 影響」(第2回韓日退溪學國際學會 1989年 1月)

垂加翁僅三年，翁最愛之」라고 한 것 같이, 尙齋는 闇齋의 同輩의 누구보다도 귀여움을 받았으나, 그것은 尙齋의 인품이 그렇게 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綱齋도 師 闇齋에 劣하지 않은 엄격한 성격이었다. 여기에 비하여 直方은 尙齋의 「默識錄」에 「直方先生，氣稟宏闊穎悟」라고 있는 것 같이 마음이 관대한 분이었으나 敬義內外論에서 闇齋와 대립되어, 이로 인하여 綱齋와 함께 師로부터 과문당하게 될 정도로 기상이 격한 점이 있었다.

綱齋는 直方과도 相和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예를 들자면 酒井忠舉의 賓師였으므로 直方은 父의 삼년상도 끝나기 전에 德川 將軍의 謝恩使로서 酒井候가 상경하는 데 따라 갔으나 綱齋는 이 불효의 죄를 責하여 이를 비난하고 이와 절교하였다.

尙齋는 두 사람의 절교를 애석하게 여기고 「綱齋先生與直方先生，其交初如兄弟，後不相通。無相絕之可言者。亦是氣質之不癖學問之大疵，甚可惜」(「默識錄」)라고 述하고 있다. 尙齋는 자기 학행은 엄격하였으나 사제간은 항시 화기애애하게 하였다. 그래서 尙齋가 서거한 때에 문인이 哭泣하기를 부모상을 당한 아들과 같았다고 稻葉默齋가 「先達遺事」에 기술하고 있다. 佐藤直方도 천성이 격한 데가 있었던 것은 尙齋 앞서간에서 볼 수가 있다.¹¹⁾ 따라서 谷重遠이나 若林強齋 등에 대하여도 제법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前文略…丹三郎(谷重遠을 말함) 등은 아주 천치같은 자올시다. 其元(三宅尙齋)은 인애하므로 남에게 작폐하는 일은 가버렸습니다. 若林事(若林強齋) 등의 말을 듣는 전혀 보잘 것 없는 속물입니다.

尙齋 앞의 서간이므로, 尙齋에게는 배치하여 「인애하다」라고 기술한 것이라 생각된다. 두 사람은, 赤穂義士에 대하여는 前述과 같은 견해의 相違가 있었으나, 直方に 있어서는 尙齋는 平生心을 許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¹²⁾이었다. 尙齋는, 학문에 대하여 진지한 태도로 생애를 일관하

10) 「山崎先生 嘗テ講義ナサレシ時ハ、四ツギリテ ソレヨリハ門ノクロヲオロシテ
- 人モ入レ玉(給)

11) 渡邊刀水「書簡より觀たる崎門の諸先達」(山崎闇齋と崎門流)

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朱子學 일변도 였다.

朱子와 李退溪는, 문학작품으로서 우수한 시를 다수 만들었고, 闇齋도 어느 정도의 시작품이 있다. 그러나, 尙齋에게는 거의 그것이 없다. 현존하는 것은, 幽獄中에 만든 「富貴壽天下 二心云云」의 七絶 오직 그것 뿐이다. 作詩는 하지 않았으나, 尙齋에게는 풍류를 즐기는 마음이 있어서, 京都에 在住하고 부터는 57세의 경, 매년 문인의 宮地靜軒, 味池儀平(修居)들과 東山の 靈山이나 黒谷, 吉田山을 산책하거나, 靈山の 權阿彌宅에서 「易傳」이나 「論語」 등을 사제 서로 간에 講하였다.

성격, 학행, 풍취 등에서 闇齋, 綱齋, 直方, 尙齋 중에서는 尙齋가 李退溪와 공통하는 점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尙齋는 향년 80세까지 살았으므로, 저서를 많이 남겼다.

門弟 留守希齋가 「三宅子全書」 350권, 「續集」 3권을 편찬하였으나, 散逸하고, 明治 27년(1894)에 名古屋의 永井希哲이 재차 「三宅子全書」 138권, 「續集」 2권을 편찬하였으나 그것도 현재는 산일되었다. 九州大學을 비롯하여 각 대학의 도서관 연구실 및 각지의 도서관 등에 현존하는 尙齋의 遺文 중에서, 李退溪에 관한 尙齋의 작품을 열거하면, 현재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단, 이 중에는 記載, 담화 작품성립의 해, 尙齋의 연령 등의 불명한 것도 있다.

默識錄序	1箇所	正徳5	54세
尙齋先生雜談錄 상	2箇所	享保8, 14	62세, 68세
大學筆記	3箇所	불명	
朱易衍義筆記	7箇所	享保15	69세
尙齋先生雜談錄 하	1箇所	元文4	78세
朱子書節要拔萃			
論語筆記	2箇所	불명	

「朱子書節要拔萃」 제작년도는 불명하나, 阿部吉雄 박사는 「日本朱子

12) 田中謙藏「佐藤直方先生」(「山崎闇齋と其門流」)

學と朝鮮」에 “崎門三傑의 1인, 三宅尙齋는 李退溪를 언급함이 가장 적으나, 그래도 「朱子書節要」의 발췌를 만들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것으로써 尙齋門에서는 「朱子書節要」의 발췌문을 강좌용 교재(text)로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論語筆記」와 「大學筆記」의 제작년월은 불명하나, 「大學筆記」에 대하여는, 享保 12년, 尙齋 66세 때에 「大學續筆記」를 만들었으므로, 그 이전의 것으로 생각된다. (附言 : 享保癸丑三月三宅重固識의 寫本이 있다. 享保 18년, 尙齋는 72세였으니, 「大學續筆記」가 먼저 성립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尙齋는 「默識錄」의 序에서 闇齋는 동일하게, 「自省錄」, 「讀書錄」, 「居業錄」을 읽고 있었음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朱子曰 默而識之者. 不信而此物常有也. 今人但說著時在, 不說時不在. 橫渠有正蒙之作. 朱子有偶記之筆. 其他薛氏之讀書錄, 胡氏之居業錄, 及退溪之自省錄. 皆深求詳察, 仁義忠信, 不離乎心, 而欲日知其所亡, 月無忘其所能矣.

尙齋에게는 李退溪의 「自省錄」의 영향이 크다. 「論語筆記」에 「論語」雍也篇의 「知者樂水, 仁者樂山」 장의 해석은 李退溪의 설¹³⁾이 우수하다하여, 「李退溪說此章詳矣」라고 述하고 있다. 또 「論語」述而篇의 「子食於有喪者之側, 未嘗飽也」의 장에 대하여는, 「論語筆記」에서 尙齋는 「李退溪以蘇爲是, 薛文清不是」라고 말하고 있다. 「蘇」라 함은 蘇軾(동파)을 말한다. 北宋의 時代宋의 司馬溫公의 死去에 즈음하여, 程子가 朝賀 때문에 溫公의 喪에 조문하지 아니하여, 동파가 정자를 비난했다. 후의 儒者도 소식에 대하여 시비를 논하였다.

「大學筆記」에서 李退溪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이 3개소가 보인다. 尙齋는 「大學之書, 一言不及乎法之設, 度政事之施者」라고 述하고, 「退溪李氏謂, 夫子嘗曰, 道千乘之國, 云云, 龜山以爲, 此特論其所存而已, 未及乎爲政, 然則愚以大學一書爲存心出治之本而未及乎制度文章者, 豈爲無稽

13) 「答權生好文論樂山樂水」(「自省錄」)

之言乎」라고 이어져 있으나, 「退溪李氏謂」의 語句를 除하면 「自省錄」의 「重答黃仲學」의 文中의 어구를 그대로 쓰고 있다.

이 외에, 「程子曰, 親當作新」의 大學章句의 注에 관하여, 「退溪李氏亦謂, 大學之書, 未及乎爲政」이라고 술하고, 「所厚謂家也」의 注에 대하여는 「山崎先生曰, 李退溪謂. 前章以本末對始終而言, 至于此則對厚薄而言, 云云」이라고 술하고, 전자는 직접 李退溪를, 후자는 闇齋의 말(言)로써 李退溪의 「대학」 해석에 언급하고 있다. 「朱易衍義筆記」는 李退溪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 타작품에 비하여 많으며 7개소나 보이나 이것은 次項에서 술한다. 尙齋는 서거하기 2년 전에는 李退溪를 평하여 다음과 같이 술하고 있다.

선생曰 「그렇다, 東萊集을 읽어보건대 仁의 教라고 하는 吟味는 없는 바이다. 그런데 조선의 李退溪는 그와 같은 사람이지만 邊國에서 태어났으므로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薛文清公은 맞는 것, 朱門黃勉齋는 참으로 이르렀다고 보인다. 云云 (「尙齋선생 잡담록」下)

尙齋는 만년에 李退溪를 「그와 같은」 사람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변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였다. 「トドカヌ人」이란, 최고에 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뜻으로 생각된다. 왜 尙齋는 李退溪의 나라를 변국이라 하였는가. 尙齋는 자기의 나라 일본을 偏國으로 칭할 정도로, 中華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었다. 「默識錄」에서는 일본은 편국이라고 기술하고, 중국은 지구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尙齋는 순수한 유교도로 철저한 中華本位의 사람이었다.

Ⅲ. 三宅尙齋와 稻葉迂齋에 있어서의 退溪學

稻葉迂齋(1684~1760)는 貞亨 원년에 佐倉藩士 稻葉正則의 三男으

로서 江戸 麻生六本木에서 출생하였다. 元祿 9년, 13세 때 尙齋의 문인 三木信成에 입문하였으나, 15세가 되어 尙齋를 만나 학문할 뜻이 강고하게 되었다. 16세가 되자, 成人의 禮를 행하고, 赤井正義의 膝下에서 「근사록」, 「대학장구」를 배우고, 쪼 17세에는 佐藤直方に 의하여, 聖學의 道統은 周子, 程子, 張子, 朱子에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¹⁴⁾

寶永 4년에는 모친의 상을 당하여 心喪으로 服喪하기를 삼 년간 이었으나, 이 해의 여름에는 戶田靱部(後の 若狹守)의 요구로 가신을 위해 강학을 했다. 直方に 師事하고 있었으나, 尙齋와는 친하게 교우하여, 尙齋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寶永 4년, 尙齋 46세 때 忍藩主 阿部正喬에게서, 江戸 저택에서 붙들리기 직전 迂齋와 尙齋의 宅을 방문했다.

집에는 모든 품물이 잘 치워져 무엇하나 없이 정돈히 정연하게 되어 있었다. 尙齋는 迂齋에 대하여 자기의 심경을 기술하고 있다.

吾答云, 假令自刎以死, 不欲爲如墜死舊井之怯狀. 以故詰朝采擇故紙, 整齋什器以待捕吏至. 但存養之工夫熟. 胸中不如平日. 獨宮部豊重, 亦與我同罪. 然居然不動心. 因笑曰, 渠雖未學, 實愈於吾遠矣 (迂齋學話 : 道學淵源錄)

尙齋는 자기의 현장에 대하여, 존양이 충분치 못함을 기술하고, 자기와 同罪의 宮部豊重(忍藩士)이, 비록 학문은 불충분하면서도 거연하게 마음을 動하지 아니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다. 이 「存養」의 공부는 스승인 闇齋가 존중하였고 李退溪도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闇齋와 李退溪에게는 큰 차이점이 있었다. 「근사록」 序에서 闇齋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夫學之道, 在致知力行之二, 而存養則貫其二者也.

岡田武彦 박사는, 「楠門學과 李退溪」(江戸期の 유학)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존양은 치지와 역행의 근저라고 함이 闇齋의 所說이나, 闇齋의 경우는 오히려 역행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14) 「道學淵源錄」

지행을 관철하는 敬의 존양을 설명하더라도, 그것이 오직 마음의 각성에 멈춘다면 佛老의 허무에 빠져들 두려움이 있다고 하여, 「敬身」(修身이라 하여도 좋음)을 설명한다. …略… 그러나 퇴계의 경우는 마음의 내면의 공부에 주력한 감이 있다.

이 점에 있어서도 尙齋는, 퇴계의 「존양」의 공부를 근거로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迂齋는 官에 출사하여 신임의 기간은 일이 익숙하지 않아 걱정이 많을 것이라 결혼을 미룬다고, 尙齋에게 말하였다. 尙齋는 부부의 道는 인륜의 大綱임을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先生聞之代詞曰, 夫婦者人倫大綱. 今人以妻爲玩好長物底看. 故有此說貧者士之常, 己束薪妻炊飯足矣. 何復多慮.(「迂齋學話」, 「道學淵源錄」)

이 尙齋의 「夫婦者人倫大綱」이라는 迂齋에게 가르침은, 「李退溪書抄」 권10¹⁵⁾에서 볼 수 있다. 李退溪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孔子曰, 有天地然後者萬物. 有萬物然後有夫婦. 有夫婦然後有父子. 有父子然後有君臣. 有君臣然後禮儀有所措. …略… 以不失夫婦之道則大倫不於至數毀.

尙齋가 京都에 居定한 翌年, 正德 원년 迂齋 27세 때, 상경하여 재차 尙齋를 만나고 綱齋도 만난다. 同 5년, 31세 때, 唐津候土井利實에게 출사하고 享保 2년, 33세 때 재차 상경하여 尙齋로부터 「朱易衍義」, 「易學啓蒙」, 「周易本義」를 聽講하였다. 尙齋는 享保 10년 경부터 同 15년까지에 「周易衍義」를 寫하고 있으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李退溪의 주역에 언급한 것이 7개소가 보인다.

李退溪의 「易學啓蒙傳疑」 제 1에서는 「朱子董子二說不同圖 朱子謂, 陰交陽而生陰, …略… 然陰生陰. 陽生陽則同」이라고 되어 있으나 「周易衍義筆記」에서는, 「朱子董子二說不同圖」의 대신에 「退溪李氏曰」의 語句가 쓰이고 있다.

退溪李氏曰, 朱子謂, 陰交陽而生陰, …略… 然陰生陰, 陽生陽則同.

또 「同書」 제 4에서는, 「攄每讀啓蒙, 至四爻五爻變以不 變爻占之說,

15) 「日本刻版李退溪全集」(下)

竊疑云云」이라고 되어 있으나 「周易衍義筆記」에서는 「李退溪曰, 滉每讀啓蒙云云」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滉(퇴계의 본명)이 「啓蒙」(易學啓蒙)을 읽은 것은 「李退溪書初」 권1에서도 보인다. 예를 들면 李退溪 58세(庚申年) 때 蘆伊齋에 「曾讀啓蒙而遇有所得云云」이라고 답하고 있다.

이 외에도 「周易衍義筆記」에는, 「按, 退溪謂, 晦庵主理云云」, 「所引退溪之說云云」, 「退溪謂, 慮天未云云」, 「李退溪曰, 滉云云」, 「胡玉齋, 李退溪已作之圖」의 5개소에 퇴계를 들고 있다. 迂齋는, 기문학과 중에서도 直方과의 儒者로 되어 있으나, 尙齋으로부터 「存養」·「부부의 도」·「易學啓蒙」의 書 등을 배우고 있다. 더욱이 「存養」·「부부의 도」는 「迂齋學話」에 기록되어 「易學啓蒙」의 書와 함께, 李退溪의 가르침에 기초한 것이다.

享保 4년, 迂齋 36세 尙齋 58세의 때에 直方은 江戶에서 死去하였다. 直方の 死後, 迂齋는 享保 18년 49세의 時에, 상경하여 尙齋에게 「大學章句」를 배웠다. 元文 4년 迂齋 56세, 尙齋 死去의 1년 전이었으나, 迂齋는 79세의 尙齋를 만나 「中庸」 鬼神章을 聽講했다. 이와 같이, 迂齋와 直方の 3제자의 한 사람으로 칭할 정도의 直方の 高弟임과 동시에, 13세부터 57세까지 尙齋로부터 학문사상의 영향을 받고, 그 위에 李退溪의 학문사상을 尙齋로부터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IV. 尙齋學派와 李退溪

三宅尙齋는 直方·綱齋에 비하여 장수하여, 더욱이 前述과 같이 학행은 엄격한 반면, 天資溫厚正實하여 和柔懇篤한 인품이었으므로 사제지간은 화목하고, 간독하게 教晦應答이 이루어 졌다. 따라서 문인이 많이 배출되었다. 『道學淵源錄』에는 味池修居, 天木時中, 久米靜齋 등 20인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 외에 宮地靜軒과 村士淡齋 등 많이 있다. 久米靜齋는 尙齋의 3녀의 壻君이기도 하며, 尙齋學을 宇井默齋에게 전하였

다.

默齋는 千手廉齋에게, 廉齋는 그의 아들 旭山에게, 旭山은 月田蒙齋에게, 蒙齋는 楠本端山·碩水 형제에게로 전하였다. 端山·碩水는 李退溪의 책을 읽고 推重하고, 碩水는 계를 「朱子後一人」으로 단정하고 있다.¹⁶⁾ 端山·碩水の 學은 端山의 아들 楠本晦堂에게, 晦堂은 楠本正繼 박사에게, 正繼 박사는 岡田武彦 박사에게 전해지고 있다. 留守希齋(1705~1765)는, 名은 友信. 字를 希賢이라 칭했다. 仙臺의 사람으로, 三宅尙齋에게 師事하여 大阪에서 살며 程朱의 學을 講하고, 출사하지 아니하고 醫業으로 생활을 유지하였다.

希齋는, 李退溪를 明의 薛文清·胡敬齋와 함께 朱子の 후에 「道」를 아는 사람이라 하여, 「自省錄」·「讀書錄」·「居業錄」을 우리 黨(尙齋門)에서는 「三錄」이라 칭하고 있다고, 한국의 矩軒朴公(製述官 朴學士)에 書로써 기술하고 있다.¹⁷⁾

또 그 책 속에 「三宅先生乃僕所師事也」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 希齋는 한국의 濟庵 李書記에게 글을 보내, 明國의 유학의 書가 일본에 전해져 汗牛充棟 들어서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이나, 어느 것도 別用途가 없다고 말하고, 한국에는 퇴계선생의 앞에는 趙靜庵, 金寒暄, 鄭一蠹, 李晦齋, 후에는 鄭寒岡, 李栗谷, 成牛溪, 尹明濟가 있음을 들어, 此諸先生 竝倡明道學, 著龜於國, 表準於世」¹⁸⁾라고 李退溪 그 외의 한국유학자를 「선생」이라 호칭하여 존중하고, 도학을 倡明하고 있는 데 대하여 頌贊하고 있다. 또 海臯 李書記에게도 책을 보내어, 한국에서는 도학이 크게 열리어 예의가 성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이 希齋는 퇴계학만을 익히는 것이 아니고 李退溪를 퇴계선생으로 호칭하며, 또한 한국의 유자들도 존중하였다. 希齋는 尙齋으로부터 「周易衍義筆記」를 「敬勿爲漫出」이라고 注意를 받고 授하였다. 享保 16년(1731) 6월 8일 希齋는 京都의 柳馬場의 客舍에서 書寫하였다.

16) 岡田武彦「楠門學と李退溪」(「江戸期の儒學」木耳社)

17) 「與製述官朴學士書」(「道學淵源錄」延亨五年 希齋四十四歲)

18) 「與濟菴李書記書」(「道學淵源錄」延亨五年)

尙齋는 70세, 希齋는 27세였다. 蟹養齋(1705~1778)는 名을 維安, 字를 子定, 子礎라 칭하였다. 安藝(廣島縣)의 출신(一說에는 阿波「德島縣」의 출신)으로 되어 있다. 6세에 尾張(愛知縣)에 와서 布施氏에게 양육되고, 21세에 경도에 가서 三宅尙齋에 師事를 하고 후에 尾張藩의 儒臣으로서 藩校明倫堂에서 강학하였다. 崎門學에 따라 朱子學을 신봉하고, 徂徠의 학설을 배척하고 있다.

尙齋이 京都에 培根達支堂을 설립하여 程朱의 學을 널리 서민교육에 까지 힘을 기울이고 있을 시, 養齋와 5舍長의 한 사람으로서 久米訂齋, 多田維則, 石王塞軒, 井澤灌園과 함께 尙齋를 보좌하고 있다. 養齋는 中村習齋에 尙齋學을 전하고, 습재는 深田香實에게, 향실은 細野要齋에게 전하여 明治 시대까지, 尾張에 있어서 尙齋學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中村習齋와 細野要齋는 李退溪의 「西銘考證講義」의 手批者이다.

細野要齋手批本 「西銘考證講義」는 「日本刻版李退溪全集」(상) <李退溪 연구회>에 수장되어 있다. 宮地靜軒(1674~1753)은 名을 介行, 介直 등으로 칭하고 土佐(高知縣)의 사람으로 최초에는 山崎闇齋의 高弟子의 1인 谷秦山에 따라서 정주의 학을 수업하였다. 후에는 緒方默堂 伊藤東涯에 배웠으나 최후에는 尙齋에 사사하여 土佐藩에 출사하였다.

정헌은 植木惺齋, 富永縣河에게 學을 전하고, 현하는 恩田敬休에게, 경휴는 山本日下에게 전하고, 다시 山本日下는 子인 霞嶽에게, 霞嶽은 山本澹齋에게 전하고, 土惺에 尙齋學은 明治 초까지 전해지고 있다. 植木性齋(1688~1774)에는 李洸輯注 「朱子行狀手批本」이 있다. 이 수비본은 「日本刻版 李退溪全集」(상)에 수록되고 있다. 山宮雪樓(生沒年불명)은 名을 維深 仲淵으로 칭하였다.

江戸人으로 최초에는 室鳩巢에 배웠으나 후에 京都에서 三宅尙齋에 사사하여 崎門學을 수료하였다. 川越藩主松平大和守에 侍從들었으나 의견이 맞지 않아 사직하고 국경을 나올 때 도적에 살해되었다. 雪樓는 三宅尙齋의 「小傳」을 쓰고 있다. 그는 「薰風編」속에 「唯知朱子學, 薛文

清及貴國退溪李氏之書，知導山崎先生，尙齋先生之遺訓而已」라고 述하고, 朱子, 薛文淸, 李退溪의 서적과 闇齋의 유훈을 아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고 있다. 尙齋의 제자 村土淡齋의 子 玉水는 최초에는 山宮雪樓에게 사사하고 후에는 稻葉迂齋의 문인이 되었다.

佐藤直方の 3제자의 1인으로서 迂齋는 直方과의 주류로 되어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尙齋에게서 퇴계학을 배우고 있다. 迂齋에게 사사한 村土玉水는 服部栗齋 岡田寒泉에게 崎門學, 퇴계학을 전하였다. 玉水는 「李退溪書抄」를 편찬하고 몰후 33년 후에는 寒泉의 진력으로 「李退溪서초」 10권이 간행되었다. 服部栗齋의 父 服部梅甫는 尙齋에게서 배우고 攝津國 豊島郡 (大阪府池田市豊中市)에 있으면서 飯野候에 출사하여 郡宰가 되고 실천이행의 학을 활용하고 있다.

岡田寒泉은 최초에 尙齋의 제자 村土淡齋에게 兵學을 배웠다.¹⁹⁾

V. 結 論

三宅尙齋는, 師 闇齋는 말할 것도 없이, 선배의 直方·綱齋에게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퇴계의 사상·학문을 존신한 사람이다. 그 뿐만 아니라 성격, 자연풍물의 애호의 면에서도 李退溪에 가깝다. 또 尙齋의 문류의 사람들 중에도 端山·碩水 형제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퇴계를 존중하고 그의 학문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더구나 尙齋는 闇齋, 直方, 綱齋에 비해서 순수한 유교도였다. 直方門의 1인인 渡邊豫齋의 「吾學源流」에는 尙齋의 견식이 直方에게 뒤떨어져 있는 이유로서 李退溪를 知하는 것이 않으며, 또 尙齋는 한쪽으로만 퇴계를 보았다고 기술되어 있다.

尙翁之見，所以不及佐藤子者，知李退溪淺矣。…略… 尙翁之以平平視退溪，佐藤字以平平視薛文淸也。

19) 近藤春雄「岡田寒泉」(『日本漢文學大辭典』明治書院)

豫齋는 稻葉迂齋의 字 默齋 手塚垣齋, 藤田畏齋의 학통, 즉 直方學派의 1인이다. 이와 같은 尙齋와 直方(佐藤子)의 비교론은 妄說謬見에 불과하다. 尙齋門의 사람들 중에는 楠本端山·碩水을 위시하여 月田蒙齋, 小笠原敬齋(豊前小倉藩主의 弟), 橋本左内 등 他的 崎門學派 中の 사람과 함께 일본 江戸 말기에 활약하고, 明治維新에 의하여 일본 근대화의 바탕을 만들기 위해 몸을 던져 國事에 활약하였던 儒者가 있다.

후까지 장성한 유자나마 시류에 아부하여 절의를 굽히지 않고 명성, 지위에 미혹됨이 없이 소신을 완수하였다. 예를 들면 楠本端山·碩水가 그 가장 으뜸되는 자이다. 明治維新 후 일본은 서양의 문명사상을 맹목적으로 도입하고 극단의 국수주의에 함입되었다. 기문학의 山崎闇齋나 淺見綱齋의 민족주의에 입각한 국가주의의 사상은 편협한 국수주의자에게 이용되었다. 따라서 제 2차 세계대전 종료까지는 국수주의를 고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따라서 전집·저작 등이 다수가 발간되고 있다. 佐藤直方全集도 일본의 國體를 언급하고 있다. 「中國論集」, 「湯武論」 등이 제외되어 昭和 16년(1941)에 발행되고 있다. 그런데 三宅尙齋의 전집은 발간되지 않았다.

昭和 14년(1939)에 간행된 「근세일본의 유학-德川公繼宗七十年祝賀紀念會-」에 게재되고 있는 제논문 중에도 三宅尙齋를 취급한 것은 한 편도 없고 阿部吉雄의 「山崎闇齋와 그의 교육」 중에 尙齋의 명칭이 散見되는 정도로 타의 논문 중에는 尙齋의 명칭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무슨 까닭일까? 尙齋는 당시의 국수주의, 제국주의에 따른 침략주의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 위대한 일본의 순수한 유교도, 더욱이 李退溪의 영향을 받고 인품도 李退溪를 닮은 尙齋를 우리들은 더욱 알아야 한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위대한 분의 학문, 사상을 깊이를 더하여 日韓 양국의 우호로 羈絆을 다시 강화하여 세계의 참된 항구적인 평화에 공헌해야 할 일이다.